지속가능한 발전 '바다'에서 답을 찾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남긴 것

기후변화·해양보전 지구적 이슈 부각
K팝 등 공연 1만3296회 … 70만명 관람
800만 관람 불구 안전사고 한건 없어
크루즈 대거 입항 … 해양관광시대 활짝

오는 12일 아쉬운 폐막을 앞둔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루 최대 27만명이 몰려드는 등 숱한 화제와 바다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남겼다.

◇환경박람회=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는 기후변화, 해양자원개발, 해양보전 등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국제 해양·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현 인류가 처한 생태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폐막식에 발표될 '여수선언'은 해양산성화,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을 위협받고 있는 바다를 살리고 바다로부터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류의 다짐을 담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본 축제와 토론의 장이었다. 주제 전달도 탁월했다. 바다를 사랑한 소녀가 생명과 파괴의 현장을 둘러보고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빅오쇼와 생명을 위협 받는 듀공의 절규는 관람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문화박람회=관람객 참여·체험 등을 통한 전시관별 연출, 한국관의 강강술래, 주제관·산업기술관·포스코관 등은 다양한 퍼포먼스, 기후환경관의 빙하체험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K팝 공연과 길거리 문화행사도 박람회장을 물들였다. 박람회 기간 총 1만3296회 공연이 열려 관람객의 흥을 돋웠다. 엑스포 팝 페스티벌에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 167팀이 매일 릴레이로 출연해 누적 관중 70여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94개국이 준비한 총 269회의 참가국 공연을 통해 각 국가 별 이색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안전박람회=자원봉사자와 경찰 등 민·관이 힘을 모아 800만여명이 몰린 전시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치른 '안전 엑스포'로 기록될 것이다. 개막전부터 조직위와 국가정보원과 경찰·해경이 대테러 작전에 돌입하는 등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소매치기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려됐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박람회장 혼잡도를 예측해 안전 관람을 돕는 '회장운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안전 박람회를 이끌었다.

◇해양시대 연 박람회=박람회장에 유명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는 등 여수가 새로운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폐막 후는 박람회장은 해양 산업의 요람으로 육성된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제시한 바다에서의 새로운 녹색성장은 여수가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박람회 부지에는 '바다 박람회'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아쿠아리움, 해양상업시설, 해양테마시설, 관광형 해양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유럽과 미국 등지의 언론이 '아름다운 박람회'로 각국에 알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여수가 세계인에게 소개되는 등 광주·전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도 가장 큰 성과를 기록될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 바다에 띄우는 스위스 빙하 코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박순기 주제관장 겸 전시운영본부장과 올리비에 루스 스위스관 총괄 디렉터, 마티나 뤠쳐 스위스관 홍보 담당자 및 스위스관 직원들이 9일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폐막을 기념하고 한국과 스위스의 우호적인 관계가 한 차원 더 깊어지기를 희망하며 스위스관에 전시됐던 빙하 코어(Ice core)를 여수 바다에 띄어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럽의 수원(水原)인 스위스에서 직접 채취해온 생명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빙하 코어(Ice core)를 한국에 선사한다는 뜻깊은 의미 아래 기획됐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사진=연합뉴스

민주 대선 경선 '박준영 변수'

일부 여론조사 4위 부상 … 지지율 상승세
제주 경선 5% 이상 확보 땐 결정적 영향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박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호남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면서 본선은 물론 결선 투표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박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지사가 순회 경선에서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일 경우, 호남의 대표 주자라는 상징성을 상실하면서 문재인·손학규·김두관 후보 등 3인의 원심력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완주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박 지사의 선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첫 번째 순회 경선지역인 제주에서의 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교적 호남세가 두터운 제주에서 박 지사가 선전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타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유지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최고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지사 캠프에서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의 지지율 추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주 경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박준영 후보가 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최근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 박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4위로 부상하는가 하면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어려움은 있지만 제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기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지사가 민주당의 순회 경선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인지도 및 조직 측면에서 타 후보에 비해 취약한데다 박 지사가 후보와 지사직을 병행하면서 선거운동 측면에서 제약받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지사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이라며 "박 지사가 이러한 재료를 십분 활용, 호남의 상징성을 확보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지사는 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정세균 후보와 제가 '호남'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 사회로 진입한 우리는 '지역'이라는 후진적인 틀을 깨야 한다. 끝까지 경선을 치르겠다"고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남북 간 교류를 통한 민족화합 ▲친환경 중농정책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환경, 관광, 산림, 농축산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이틀 후면 여수세계박람회가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오늘은 아르헨티나관에서 '특별한 탱고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Seleccion Nacional de Tango'쇼(아르헨티나관·오후 6시)
△국가의 날-UN(엑스포홀·오전 10시)
△액션드로잉여수(천막극장·낮 12시)
△해상쇼(해양광장·오후 2시30분)
△유스밴드-뮤지카누베(해양광장·오후 4시30분)
△팝페스티벌-브라운아이드 소울, 국카스텐(특설무대·오후 8시)
△빅오쇼(해상무대·밤 8시50분)

△어제의 관람객 수=14만1795(9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749만6273명

올림픽 종목 아닌가요?!

현영희 가족계좌서 뭉칫돈 발견

검찰, '새누리 공천헌금' 수사 … 조기문 사전영장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9일 오후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4면〉

조씨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4·11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 의원의 비서 정동근씨로부터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쯤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정씨가 건넨 3억원이 든 쇼핑백을 루이뷔통 가방에 옮겨 담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230조 제6항과 제47조의 2 제1항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은 현 의원 남편회사의 재무담당 이모 상무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 상무를 소환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할 경우 현 의원의 남편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건너갔는지도 계좌추적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태극전사 경기 일정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